

투자상대국의 노동시장조건이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이론과 실증연구

정 한 나* · 김 상 기**

논문 초록

본 연구는 투자대상국의 노동시장조건이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먼저 Redding and Venables(2004)을 확장한 이론모형을 분석한 후 노동시장조건과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인과관계 파악을 통해 실증분석모형을 수립하였다. 2001년~2012년 기간에 대한 패널자료를 구축했고 이를 근거로 한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결정에 있어 투자대상국의 노동시장조건변수(노조조직률, 고용보호수준, 노동생산성, 노동자의 숙련도)들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노조조직률이 높을수록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유의하게 낮아졌으며 내생성을 통제한 모형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근로자 협상력이 높거나 높아지는 국가에 대해서는 FDI를 줄이는 모습을 한국 사례에서도 확인한 것이다. 한편 한국의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고용보호수준과 노동자의 숙련도는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OECD 국가에 대한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대부분 시장 확보를 위한 수평적 투자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핵심 주제어: 해외직접투자, 노조조직률, 고용보호수준, 하향경쟁(race to bottom)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F16, F23, J80

투고 일자: 2018. 4. 16. 심사 및 수정 일자: 2018. 7. 11. 게재 확정 일자: 2018. 8. 24.

* 제1저자,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e-mail: hnjung5493@gmail.com

** 교신저자, 강원대학교 글로벌인재학부 지역경제전공 조교수, e-mail: abekim@kangwon.ac.kr

I. 서론

다국적 기업들은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소비 시장 접근을 극대화하거나 비용 최소화 방식으로 이윤을 추구해 왔다. 다국적기업으로부터의 투자유치를 위해 여러 나라들이 법인세를 낮추거나 자국의 노동시장 조건을 악화시키는 일종의 ‘하향경쟁(race to the bottom)’의 문제가 제기 되어져 왔다(Davies, Vadamannati, and Chaitanya, 2013). 해외직접투자 유치를 위해 여러 나라들이 글로벌 기준을 추구함으로써 투자국의 노동시장 조건의 개선을 가져온다는 연구들이 있는 반면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원하는 정부의 자국 노동시장 규제 완화가 자국 노동시장 조건을 결과적으로 악화시키는 일종의 하향경쟁 현상을 제시한 연구들도 다수 존재한다(Rodrik, 1996; Kucera, 2002; Olney, 2013; Duanmu, 2014). 이는 다국적기업이 투자국을 선정할 때 노동시장 규제수준이 낮으며 노동시장관련 비용이 적은 국가를 선택할 유인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Bognanno, Keane, and Yang, 2005; Dewit, Görg, and Montagna, 2009). 만일 다국적기업이 이러한 경향성을 갖는다면 투자유치에 적극적인 국가들은 자국의 고용보호수준을 낮추는 등의 노동시장 조건을 악화시킴으로써 해외직접투자를 유도하려 할 것이다. Olney(2013)의 연구는 이를 실증적으로 뒷받침 한다. 미국으로부터 해외직접투자를 유치한 경험이 있는 26개국의 23년간 자료를 근거로 다음의 두 가지 결론을 도출했다. 먼저 미국기업들은 노동시장 조건이 약한 국가에 더 많이 투자한다는 사실이다. 또한 이들 국가들은 투자유치 증가를 위해 자국의 노동시장 조건을 악화시켜 왔다는 것이다. Olney의 연구에서는 노동시장 조건을 대변하는 변수로 고용보호수준, 노조조직률, 임금 등을 사용했다. Bognanno et al. (2005)에서는 미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시 투자대상국의 노사관계환경을 매우 중요한 변수로 파악했다. 생산공정 분절 목적의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특정 생산공정에서 투입될 수 있는 특수 노동자(specific skilled labor)를 필요로 하므로 노동자들은 나름의 임금협상력을 갖게 된다. 따라서 이 임금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국가의 노동시장조건 및 노사관계적 특성이 다국적기업의 해외직접투자 결정에 매우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된다. 최순규 외(2010) 및 김동원(2017)도 한국의 유명기업들이 해외투자시 노사관계적 특성을 포함한 노동시장 조건이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¹⁾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노조조직률, 고용보호수준 등의 변수들은 해외직접투자 결정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한국기업들의 해외투자결정에 있어서도 상대국의 노사관계적 특성을 포함한 노동시장조건이 중요하다고 가정한다. 또한 한국기업들이 투자하고 있는 국가들의 노동시장조건의 하향경쟁 여부도 분석한다. OECD 33개국에 대한 12년간의 (2001~2012) 투자 자료를 근거로 투자 상대국의 노동시장조건이 한국기업의 해외투자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먼저 이론모형을 통해 본 연구의 가장 핵심변수인 투자대상국의 노조조직률이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분석한 후 이와 관련된 실증분석을 시도한다. 제Ⅱ장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연구배경을, 제Ⅲ장에서는 분석 자료와 분석모형을, 제Ⅳ장에서는 분석결과를 제시하며 제Ⅴ장에서는 결론을 도출한다.

Ⅱ. 기존의 연구들

투자유치국의 노동시장조건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쳐왔고 각국 정부 역시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해외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장려해 오고 있다. Dewit et al. (2009)은 투자유치 및 투자유출의 양방향 FDI와 OECD 국가의 고용보호법제 지표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상대국의 고용보호수준이 높으면 FDI유출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Bénassy Quéré, Coupet and Mayer (2007) 역시 국내 고용보호 수준이 높으면 FDI유입이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투자를 받는 국가의 고용보호 수준이 높으면 FDI 유출과 유입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공통적으로 확인하였다. Busse (2003)는 개발도상국의 강제노동, 아동노동 또한 노조에 대한 권리보호가 약한 경우 비숙련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다른 국가에 비해 비교우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맥락에서 노동집약적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해외투자는 이들 국가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Olney (2013)는 투자대상국의 고용보호수준이 및 노조조직률이 낮아지는 경우 미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이들 국가로 증가함을 미국과 OECD 자료를 통해 분석하였다. Duanmu (2014) 역시 근로기준의 차이가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근로기준이 낮은 국가

1) 최순규 (2010)에 따르면 해외직접투자 시 자동차를 생산하는 H사는 투자계획 단계에서,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S사는 운용단계에서 노조 및 노사관계 문제를 해외투자 검토한다. 김동원 (2017)은 현대자동차의 브라질 공장의 노사관계운용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에 대해 투자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노동시장조건을 설정하기 위해 분석한 선행 연구들의 자료들을 <Table 1>에 정리하였다. 주요 연구들에서 기업의 해외투자가 노동기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노동기준 자료로는 고용보호수준, 임금결정 경직성, 노조조직률, 산업재해율, 노사분규율 등을 사용해 왔다.

<Table 1> Variables Describing Labor Standard in the Previous Litera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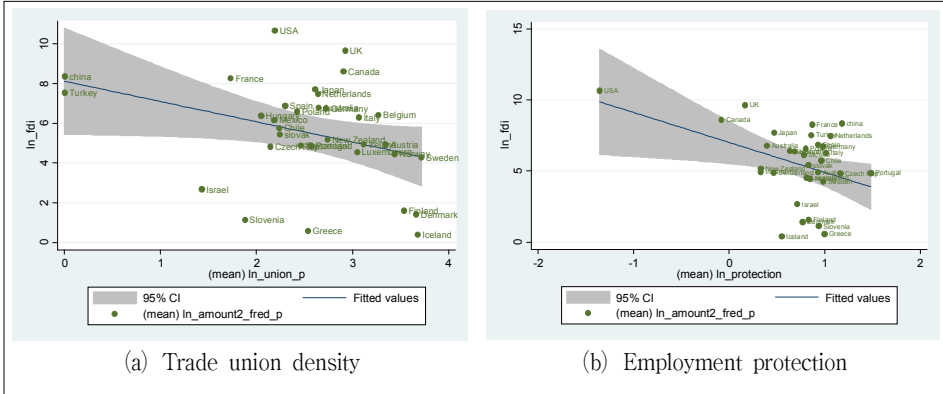
(1)	Olney (2013)	Employment protection (by OECD), trade union density (by OECD)
(2)	Duanmu (2014)	Employment protection law
(3)	Potrafke (2013)	The index on labor market regulations of the Economic Freedom (by Fraser Institute)
(4)	Bonnal, M. (2010)	injury with lost workdays, ratio of the number of strikes and lockouts to the population of the country
(5)	Kucera (2002)	FACB(Freedom of Association and Collective Bargaining)
(6)	Arestoff and Granger (2004)	Freedom from forced labour, the abolition of exploitative forms of child labour,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the respect of freedom of association and collective bargaining (by ILO)
(7)	World Economic Forum	Hiring and firing rigidity, wage determination rigidity (by survey)

FDI 유출 및 유입에 투자유치국의 노동시장 여건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결과는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본 분석은 Olney (2013)의 실증모형을 따르되 상대국의 노동 기준, 그 중에서도 노조조직률과 고용보호수준이 FDI 유출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 사례를 이용해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 기업의 해외투자 자료를 바탕으로 FDI유출에 대한 설명 요인들을 살펴보고 그 중에서도 근로자 협상력-노사관계를 대변하는 노조조직률 및 고용보호수준이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선행연구들에서 살펴보았듯이 상대국의 노조조직률을 비롯한 노동시장 조건이 FDI유출이 어떤 영향(정의 효과 혹은 부의 효과)을 받는지에 대해서 한국사례에서도 속단하기 어렵다. 하향경쟁이 존재해 부(-)의 효과를 가질 수도 있고, 유의한 결과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오히려 정(+)의 효과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가설은 Olney (2013)의 실증분석을 근거로 한국의

FDI유출에도 하향경쟁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가정한다.

(Figure 2) South Korea's Outward FDI and Trade Union Density
(or Employment Protection)



하지만 이를 통해 양변수간의 부(-)의 관계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FDI와 노조조직률 그리고 고용보호수준 간의 유의한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FDI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고려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동시장 조건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 또한 데이터를 통해 관찰하기 힘든 국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할 수 있는 분석모형의 선택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3장에서는 이론 분석 모형을 설계하고 이를 근거로 데이터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연구가설을 확인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이론분석모형

해외직접투자와 투자상대국 노동시장 조건 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상대국의 수요 및 공급측면을 모형화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농산물 A 와 제조업 제품군 M 을 소비하는 j 국 대표 소비자의 효용 U_j 는 콥-더글라스 함수 형태로 정의되며 이는 국가들마다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제조업 제품 m_{ij} 는 j 국에 진출한 i 국 기업에

의해 생산되며 제조업제품에 대한 하부효용함수 M_j 는 CES함수로 정의된다. 여기에서 R 은 국가의 수를 의미하며 n_i 는 i 국 기업의 수를 의미한다.

$$U_j = A_j^\mu M_j^{1-\mu} \quad \text{s. t} \quad M_j = \left[\sum_{i=1}^R n_i m_{ij}^{(\sigma-1)/\sigma} \right]^{\sigma/(\sigma-1)}$$

대표 소비자는 먼저 일정 수량의 제조업 제품을 구매한다는 가정 하에서 자신의 지출을 최소화 시키는 선택을 할 것이다(Fujita et al., 2003). 소비자들의 제조업에 대한 지출최소화 과정으로부터 우리는 소비에 관한 최적화된 제품선택 규칙인 $(m_{1j}/m_{2j})^{-1/\sigma} = (p_{1j}/p_{2j})$ 을 도출할 수 있다. 이 식에 근거하여 우리는 p_j 라는 j 국의 제조업 제품군에 대한 가격지수를 아래와 같이 얻을 수 있다.

$$P_j = \left[\sum_{i=1}^R n_i p_{ij}^{(1-\sigma)} \right]^{1/(1-\sigma)}$$

대표 소비자는 자신의 소득을 근거로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소비를 선택할 것이다. 우리는 본 연구에서 j 국 대표 소비자의 소득을 평균임금 $E[W]$ 으로 가정한다. $E[W]$ 는 소득분포의 평균값으로써 $E[W] = \int_{\theta_i W_{\min}}^{e\theta_i W_{\max}} W dF(W)$ 로 정의된다. 여기에서 W_{\max} 는 임금의 최대값, W_{\min} 은 최저임금, θ_i 는 국가의 노조조직률을 의미하며 θ_i 는 0과 1사이의 값일 수도 있고 θ_i 는 1보다 큰 값 일수도 있다.²⁾ 결론적으로 노조조직률의 값에 따라 임금분포는 달라진다. 또한 여기에서 e 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계수이다. 아래 함수는 소비자 효용을 극대화하는 과정을 제시한다.

$$U_j = A_j^\mu M_j^{1-\mu} \quad \text{s. t} \quad p_A A_j + P_j M_j = E[W]$$

2) θ_i 가 0과 1사이에 존재하는 경우는 노조로 인해 기업의 생산성이 하락하여 임금이 낮아질 수 있는 경우를 반영한 것이다. θ_i 가 1보다 클 때는 노조의 임금협상력으로 인해 임금이 높아지는 경우를 가정한 경우이다. 현재까지 주요연구에서는 노조조직률이 임금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Farber, 2001; Bryson 2006; Metcalf, 2008; Portugal and Vilarés, 2013; Barth et al., 2017).

효용극대화의 문제로부터 농업제품과 제조업제품에 대한 개별소비함수를 아래와 같이 유도할 수 있다:

$$m_{ij} = (1 - \mu)E[W]P_j^{\sigma-1}p_{ij}^{-\sigma}, \quad A_j = \mu E[W]/p_A$$

공급측면은 다음과 같다. Redding and Venables (2004)의 정의에 따라 공급측면은 다음과 같다. 먼저 i 국의 기업들이 j 국에 진출할 때 i 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j 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방법과 j 국에 공장을 지어 생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수출을 통해 j 국으로 진출하는 경우 i 국의 기업의 이윤함수는 아래와 같다.

$$\pi_i^{EX} = \sum_j^R p_{ij} m_{ij} / T_{ij} - G_i^\alpha w_i^\beta c_i [F_{ex} + \sum_j^R m_{ij}]$$

여기에서 p_{ij} 는 i 에서 생산된 제품이 j 국에서 판매될 때의 가격이고 m_{ij} 는 i 에서 생산되어 j 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수량을 의미한다. T_{ij} 는 빙산형태(iceberg-type)의 운송비를 의미한다. 생산함수는 콥-더글라스 형태를 따르며 i 국에서 중간재 투입물 G_i , i 국에서 노동 투입 w_i , 가변비용 $\sum_j^R m_{ij}$ 이 발생한다. 여기에서 $\alpha + \beta = 1$ 이 된다.

p_{ij} 는 $p_{ij} = p_i T_{ij}$ 이므로 마크업(mark-up)을 통해 기업의 이윤극대화 가격 $G_i^\alpha w_i^\beta c_i \sigma / (\sigma - 1)$ 을 얻는다. 이 값을 위의 이윤함수에 다시 대입함으로써 극대화된 이윤(maximized profit)을 도출할 수 있고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pi_i^{EX} &= \sum_j^R \frac{G_i^\alpha w_i^\beta c_i \sigma}{\sigma - 1} m_{ij} - G_i^\alpha w_i^\beta c_i [F_{ex} + \sum_j^R m_{ij}] \\ &= p_i / \sigma \left\{ \sum_j^R m_{ij} - (\sigma - 1) F_{ex} \right\} \end{aligned}$$

한편 이 기업이 i 국으로 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기업의 이윤함수는 아래와 같이 정의 된다.

$$\pi_i^{FDI} = \sum_j^R p_{ij} m_{ij} - G_i^\alpha w_j^\beta \left[F_{fdi} + \sum_j^R m_{ij} \right]$$

FDI의 경우 $p_{ij} = p_j$ 이다. 여기에서 p_j 는 j 국에서 생산되어 판매되는 제품 가격이고 x_j 는 j 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수량을 의미한다. 기업의 이윤극대화 가격 $p_j = G_i^\alpha w_j^\beta c_j \sigma / (\sigma - 1)$ 을 얻을 수 있다. FDI의 경우이므로 추가적인 고정비용이 발생한다. 기업의 이윤은 아래와 같다.

$$\begin{aligned} \pi_i^{FDI} &= \sum_j^R \frac{G_i^\alpha w_j^\beta c_j \sigma}{\sigma - 1} m_{ij} - G_i^\alpha w_j^\beta c_j \left[F_{fdi} + \sum_j^R m_{ij} \right] \\ &= p_{ij} / \sigma \left\{ \sum_j^R x_j - (\sigma - 1) F_{fdi} \right\} \end{aligned}$$

수출보다 직접투자(FDI)가 더 높은 이윤을 창출하는 경우라면 기업은 직접투자를 선택할 것이다.

$$\pi_i^{FDI} - \pi_i^{EX} = p_j / \sigma \left\{ \sum_j^R m_{ij} - (\sigma - 1) F_{fdi} \right\} - p_i / \sigma \left\{ \sum_j^R m_{ij} - (\sigma - 1) F_{ex} \right\} > 0$$

Klienert and Toubal (2010)은 Redding and Venables (2004)의 연구를 확장해서 외국 자회사가 생산하는 총생산액을 추정하였다. $n_i p_{ij} m_{ij}$ 는 i 국 기업이 j 국에 대해 생산·판매하는 제품의 총가치는 기업수와 가격과 제품수의 곱이다. 이 수요를 FDI가 대체하므로 $n_i p_j m_{ij}$ 가 된다. 수식 1로부터 제조업 제품군에 대해 소비는 총소득 $E[W]$ 중에서 $(1 - \mu)$ 의 비율로 소비가 발생하며 가격지수 $P_j^{\sigma-1}$ 와 제품가격 $p_j^{1-\sigma}$ 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Redding and Venables (2004)에 따르면 $(1 - \mu)E[W]P_j^{\sigma-1}$ 는 j 국의 시장역량(market capacity)이며 $n_i p_j^{1-\sigma}$ 는 기업의 수와 j 국에서의 시장가격으로 기업의 공급역량(supply capacity)를 의미한다. 한편 Redding and Venables (2004)과 달리 본 모형은 FDI 상황을 가정하고 있으므로 운송비는 고려되지 않는다.

$$\begin{aligned}
 n_i p_{ij} m_{ij} &= n_i p_j m_{ij} = n_i (1 - \mu) E[W] P_j^{\sigma-1} p_j^{1-\sigma} = n_i p_{ij}^{1-\sigma} (1 - \mu) E[W] P_j^{\sigma-1} \\
 &= \underbrace{n_i p_j^{1-\sigma}}_{\text{자회사의 공급역량}} \underbrace{(1 - \mu) P_j^{\sigma-1} \int_{\theta_i W_{\min}}^{\theta_i W_{\max}} W dF(W)}_{j\text{국의 주요역량}}
 \end{aligned}$$

한편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자회사의 공급역량과 j 국의 시장역량에 대해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해외직접투자는 아래의 식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begin{aligned}
 FDI_{ij} &= n_i p_j m_{ij} = n_i p_j^{1-\sigma} (1 - \mu) P_j^{\sigma-1} \int_{\theta_i W_{\min}}^{\theta_i W_{\max}} W dF(W) \\
 &= n_i p_j^{1-\sigma} (1 - \mu) P_j^{\sigma-1} \frac{(\theta_i e W_{\max} + \theta_i W_{\min})}{2}
 \end{aligned}$$

여기에서 $F(W)$ 를 균등분포(uniform distribution)로 가정하였다.

로그선형화를 하면 위의 식을 아래와 같이 다시 쓸 수 있다. 이 모형에 근거하여 투자상대국의 노조조직률 θ_i , 임금수준 등의 투자유치국의 노동시장조건이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할 것이다. 이를 실증분석 모형에 반영한다.

$$\ln FDI_{ij} = \ln \alpha_1 + \alpha_2 \ln SA_i + \alpha_3 \ln \theta_i + \alpha_4 \ln MA_i$$

$$\text{여기에서 } SA_i \equiv n_i p_i^{1-\sigma}, \quad MA_i \equiv (1 - \mu) P_j^{\sigma-1} \frac{(e W_{\max} + W_{\min})}{2}$$

위의 식은 노조조직률 및 임금수준과 FDI 간의 인과관계를 제시하고 있으며 투자대상국의 노조조직률은 0과 1사이의 값을 갖기 때문에 로그를 취한 이후 값은 음이 되어 투자대상국으로의 FDI를 낮추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2. 실증분석모형

이론분석모형의 결과 및 Olney (2013)의 분석모형을 근거로 한국의 투자대상국에 대한 FDI에도 하향경쟁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가정 하에 본 연구의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세운다.

가설1. 상대국의 노조조직률이 높으면 한국의 해당국가에 대한 FDI는 낮아진다.

가설2. 상대국의 고용보호수준이 높으면 한국의 해당국가에 대한 FDI는 낮아진다.

가설 1과 가설 2를 포함하여 본 연구의 실증 분석 모형을 식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었다.

$$FDI_{c,t} = \alpha_1 LS_{c,t-1} + \alpha_2 X_{c,t-1} + \lambda_c + u_t + \epsilon_{c,t} \quad (1)$$

각 변수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 $FDI_{c,t}$ 는 t 연도에 국가 c 에 대한 한국기업의 해외투자를 의미
- $\alpha_1 LS_{c,t-1}$ 는 투자대상국의 노동시장조건을 나타내는 벡터로서 $t-1$ 연도의 노조조직률, 고용보호수준정도, 그리고 단위 노동비용, 노동자의 숙련도 수준으로 구성
- $\alpha_2 X_{c,t-1}$ 는 투자대상국의 주요경제여건에 대한 통제변수들의 벡터로서 $t-1$ 연도의 GDP, 법인세율, 한국과의 지역무역협정(RTA) 체결 및 EU 가입 여부, 교역개방도(trade openness)로 구성됨
- λ_c , u_t , 그리고 $\epsilon_{c,t}$ 는 국가와 연도의 고정효과 및 오차항을 각각 의미

최소자승법으로 추정하면 관찰 불가능한 변수에 의해 국가의 특성이 통제되지 않아 누락변수에 의한 편이가 발생하여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 따라서 동태패널모형(dynamic panel model) 중 임의효과모형을 사용하였다(Figini and Gorg, 2006). 이는 LM 검정(Breusch & Pagan test) 결과 λ_c 의 분산이 0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고 하우스만 검정(Hausman test) 결과 $Cov(X, \lambda) = 0$ 이 기각되지 않아 임의효과모형이 본 분석에서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더불어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상대국의 노조조직률 및 고용보호수준 간에 존재하는 내생성(endogeneity)을 고려하여 정권이념성향 변수를 도구변수로 하는 도구변수모형 분석을 통해 연구결과를 재확인한다.

3. 데이터 및 기초통계량

본 분석은 OECD 33개 국가(부록 [A. 1] 참조)의 2001~2012간 자료를 불균형 패널데이터(unbalanced panel data)로 구성하였다. FDI자료는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공하는 해외투자통계의 2001~2012년간 해외직접투자자료 중 투자금액 자료를 활용 한다(손녕선·허정, 2017).³⁾

한편 OECD 국가가 분석대상이므로 선진국 대상의 한국 해외직접투자도 한정되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한국의 OECD 국가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는 저비용을 목적으로 하는 수직적 해외직접투자(vertical FDI) 보다는 시장 확대를 위한 수평적 투자(horizontal FDI)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수평적 투자란 해외시장에 물건을 팔거나 수출시 발생하는 운송비용(transport cost)을 피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FDI인 경우를 의미한다(Markusen, 1984). 본 연구에서 사용한 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통계를 투자목적에 따라 현지시장진출, 보호무역타개가 투자목적인 경우를 수평적 투자로 분류할 경우 수평적 투자로 분류되는 투자금액이 전체의 49.2%이다(부록 [A. 4] 참조, 더불어 1980~2015년간 한국 해외 투자금액의 62%가 OECD 국가에 투자되고 있다. 투자금액 : 308,971,698천불 중 OECD 투자금액 191,889,599.8천불). FDI 유형에 따라 분류하였을 때 수평적 투자에 해당되는 투자금액이 크다는 것은 본 자료를 통한 분석결과가 한국의 FDI에 대한 연구결과에 있어 대표성을 가지는 결과임을 뒷받침한다. 하지만 OECD국가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저임활용 등을 위해 이루어지는 수직적 투자는 포함시키지 못해 고용보호수준에 대한 민감도를 과소 추정할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한 Olney (2013) 역시 수평적 투자는 현지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이루어진 투사이기 때문에 그 국가의 고용보호수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한 국가의 해외직접투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투자결정여부에 영향을 미칠 투자국(parent country)의 특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Olney, 2013). 해외직

3) FDI, GDP, 인구 등의 변수들은 더 장기간의 데이터를 구할 수 있지만 그 외 변수들의 관측치를 고려했을 때 분석에 사용될 수 있는 기간은 2001~2012년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공하는 해외투자통계자료는 신고금액과 투자금액으로 나뉘어 있다. 자료에 따라 두 변수간의 차이가 작은 경우도 있었지만 큰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진 투자금액 변수를 사용하였다. 본 모형 분석시 계수의 해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모든 연속변수에 대해 로그화 하였다.

접투자자료는 GDP 디플레이터를 기초로 실질달러가격으로 변환하였다. 노동시장 조건을 나타내는 핵심변수는 노조조직률, 고용보호수준 지수, 단위노동비용, 노동자의 숙련도 수준이다. 투자대상기업의 노조조직률은 전체 임금근로자 중 노조에 가입된 근로자의 비율을 의미하며 OECD로부터 관련 자료를 얻었다. 고용보호수준은 OECD에서 제공하는 고용 보장법 지표(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Index)를 활용한다. 이는 각 국가의 개인 또는 근로자를 해고 절차 및 그에 따른 비용, 고용계약 상 고용기간 및 임시직 여부를 통해 고용보호수준을 지표화한 것이다. 단위노동비용 자료 또한 OECD로부터 제공받았는데 여기서 단위노동비용이란 한 단위의 생산을 위해 필요한 평균 노동비용을 의미하며 근로자의 생산성을 대변하는 변수이다. 노동시장여건에 대한 마지막 변수로서 해당국가의 노동자 숙련도 수준이 있는데 이 자료는 Barro and Lee (2010)의 학업기간자료(Educational Attainment Dataset)를 이용한다. 해당 데이터는 1950년부터 5년 단위로 평균학업연수(average years of schooling) 데이터를 보고하고 있으며 근로자 숙련도를 고려하기 위해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자료이다.

더불어 시간에 따른 국가의 투자환경 및 경제여건 변화를 설명한 독립변수로는 GDP, 인구 데이터, 법인세율, 국가의 이념, 개방도 지수, 지역무역협정, EU 가입여부를 사용한다. GDP 및 인구자료 및 법인세율은 OECD로부터 얻었다. 또한 그 국가가 한국과의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자료는 WTO의 Regional Trade Agreement Database에서 얻었으며 이 때 한국과 RTA(FTA, CU, EIA) 체결여부를 더미변수로 생성하였다. 마찬가지로 투자대상 국가 중 EU인 국가인 경우도 1로 더미 변수화 하였는데 본 분석이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경제협력체이기 때문에 해당 특성을 통제하였다(Olney, 2013). 특정국의 정치성향 혹은 이념을 나타내는 이념(ideology) 자료는 Database of Political Institutions dataset developed (Keefer, 2012)에서 얻었고 이 자료에서 해당기간에 집권중인 정부의 정치적 이념이 보수인 경우에는 1, 중도일 때 0, 진보인 경우에는 -1로 코딩되어있다. 진보적인 정당인 경우 상대적으로 근로기준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노조 혹은 고용보호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반영한 것이다(Olney, 2013). 무역 개방도는 OECD를 자료를 사용하여 GDP 대비 무역량을 통해 도출하였으며 $((\text{exports} + \text{imports}) / \text{GDP})$ 값이 클수록 해당 국가의 무역개방도는 큰 것이다. 위 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은 아래와 같다.

〈Table 2〉 Summary statistics

(Units: m\$, %)

Variable	Obs	Mean	Std.	Min	Max
FDI	187	52,935	148,003	0.07	1,689,465
GDP	187	2,071,143	3,374,829	35,199	15,200,000
population	187	51,200,000	72,300,000	451,630	312,000,000
corporate tax rate	187	31.88	6.00	12.50	52.03
unit labor cost	187	1.98	2.45	-9.05	9.44
average years of schooling	187	10.85	1.22	7.02	13.18
trade union density	187	29.30	16.87	7.55	78.05
ideology	187	0.16	0.93	-1.00	1.00
RTA	187	0.04	0.19	0.00	1.00
EU	187	0.12	0.33	0.00	1.00
Tarde openness	187	2.40	1.27	1.42	4.32

Notes: *: $P < 0.1$, **: $P < 0.05$, ***: $P < 0.01$.

본 논문의 주요 변수인 노조조직률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면 해당 기간 동안 노조조직률이 증가한 국가는 이탈리아(2001년 34.2%→2012년 36.3%), 스페인(2001년 16.4%→2012년 17.5%), 칠레(2001년 13.1%→2012년 15.3%) 정도이고 나머지 국가들의 노조조직률은 분석 대상 기간 동안 대부분 감소추세이다. 그 중에서도 감소폭이 큰 국가들의 추이를 살펴보면 [A. 2]와 같다. 슬로베니아($\nabla 20.4\%p$, 2010년 기준), 스웨덴($\nabla 10.5\%p$), 체코($\nabla 10.4\%p$), 헝가리($\nabla 9.4\%p$), 룩셈부르크($\nabla 8.9\%p$), 아일랜드($\nabla 6.6\%p$) 순이다. 1980-90년대 동유럽을 중심으로 존재했던 사회주의 국가들은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시장중심 경제로의 전환, 기업 및 산업의 민영화 등의 변환기를 맞게 된다. 이와 같은 재구조화 국면은 노동조합의 역할에도 큰 변화를 주었다. 동유럽 국가 중 다수가 노조가입률에 큰 변화가 생긴 것도 동일한 이유이다.⁴⁾

더불어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Pearson correlation analysis)를 〈Table 3〉을 통해 살펴보면 한국기업의 FDI와 상대국의 노조조직률 및 고용보호수준 간에는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상대국의 노조조직률과 고용보호수준

4) 구조적인 변화가 본 분석의 결과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해당되는 동유럽 국가의 값을 제외하고 결과를 비교해 해보았지만 회귀분석 결과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Table 3〉 Pearson Correlation Matrix

	(1)	(2)	(3)	(4)	(5)	(6)	(7)	(8)	(9)	(10)	(11)
(1) FDI	1										
(2) employment protection	-0.281*** (0.000)	1									
(3) trade union density	-0.170*** (0.000)	0.0390 (0.378)	1								
(4) GDP	0.116*** (0.009)	-0.274*** (0.000)	0.482*** (0.000)	1							
(5) population	0.065 (0.140)	-0.038 (0.385)	0.304*** (0.000)	0.523*** (0.000)	1						
(6) unit labor cost	0.060 (0.171)	0.063 (0.151)	-0.211*** (0.000)	-0.181*** (0.000)	0.055 (0.209)	1					
(7) corporate tax rate	0.024 (0.585)	-0.062 (0.161)	0.395*** (0.000)	0.225*** (0.000)	0.227*** (0.000)	-0.135*** (0.002)	1				
(8) average years of schooling	0.357*** (0.000)	-0.329*** (0.000)	0.061 (0.167)	0.110** (0.013)	0.080* (0.070)	0.246*** (0.000)	0.155*** (0.000)	1			
(9) RTA	0.123*** (0.005)	-0.054 (0.220)	-0.035 (0.434)	-0.040 (0.363)	-0.003 (0.946)	0.118*** (0.007)	0.179*** (0.000)	0.148*** (0.001)	1		
(10) EU	0.188*** (0.000)	0.098** (0.026)	-0.096** (0.029)	0.052 (0.242)	0.042 (0.340)	0.306*** (0.000)	-0.072 (0.102)	0.030 (0.501)	-0.088** (0.045)	1	
(11) trade openness	0.388*** (0.000)	-0.303*** (0.000)	-0.118*** (0.007)	0.309*** (0.000)	0.199*** (0.000)	0.110** (0.013)	-0.411*** (0.000)	0.170*** (0.000)	-0.006 (0.885)	0.046 (0.292)	1

Notes: *: P<0.1, **: P<0.05, ***: P<0.01.

이 높을수록 해당 국가에 대한 FDI는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GDP, 근로자 숙련도, 지역무역협정 체결여부, EU 회원국 여부, 무역개방도 정도와는 정(+)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고용보호수준은 GDP, 근로자 숙련도, 무역개방도와 부(-)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EU 국가일 때 고용보호수준과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분석결과

식 (1)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이 때 LM 검정(Breusch & Pagan test)과 하우스만(Hausman) 검정을 근거로 본 분석에서는 임의효과모형이 더 적합하다는 결론을 얻었으므로 이에 따른 결과만을 제시한다. 모형(1)→모형(2)→모형(3)으로 확장하여 상대국의 사회경제적 특성 및 노동시장 조건이 한국 기업의 FDI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그중에서도 노조조직률과 고용보호수준이 미치는 효과의 변화에 중점을 둔다.

<Table 4>의 모형(1)은 한국기업의 FDI결정에 상대국의 경제규모 및 조건이 미치는 영향을 통제한 결과이다. 상대국 GDP_{t-1} 은 FDI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국의 경제성고가 좋으면 해당 국가에 투자를 증가시키며, 반면 법인세가 높으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투자를 낮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형(2)에서는 상대국의 노동시장 조건을 대변하는 단위노동비용, 근로자 숙련도, 노조조직률을 이용하여 모형을 확장한다. 분석결과 상대국의 노조조직률이 1% 증가할 때 해당 국가에 대한 FDI가 3.8% 감소했다($\beta = -0.038, p < 0.1$). 한국 기업의 FDI 결정 시 노사관계에 대한 측면이 고려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재확인 할 수 있었다. 반면 모형(1)에서 부의 효과를 가졌던 법인세의 효과는 모형(2)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모형(3)은 한국과의 지역무역협정 체결여부, EU가입여부, 무역 개방도를 이용하여 모형을 확장하였다. 분석결과 노조조직률이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게 부(-)의 효과를 미치며($\beta = -0.04, p < 0.05$) 모형(2)에 비해 계수 절대 값과 유의수준이 높아진 결과가 도출되었다. 또한 EU 가입 국가인 경우 한국의 FDI가 유의하게 높다. 본 모형을 통해 상대국의 경제규모, 투자기반, 노동시장 특성, 한국과의 경제협력 여부 등을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상대국의 노조조직률 증가는 투자대상국에 대한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유의하였다.

〈Table 4〉 Determinants of FDI (DV: South Korea to OECD countries)

변수	(1)	(2)	(3)
GDP _{t-1}	2.228** (0.761)	4.206** (1.539)	3.303* (1.803)
popoluation _{t-1}	-1.356* (0.721)	-3.728** (1.442)	-3.034** (1.521)
corporate tax rate ₋₁	-1.949** (0.900)	-0.932 (1.282)	0.620 (1.470)
unit labor cost _{t-1}		-0.110 (0.076)	-0.008 (0.083)
average years of schooling _{t-1}		3.414 (2.807)	2.608 (2.889)
trade uion density _{t-1}		-0.038* (0.020)	-0.040** (0.020)
RTA			1.098 (1.245)
EU			1.695** (0.516)
trade openness			0.133 (0.587)
constant	7.563* (4.155)	10.342 (10.083)	6.698 (10.682)
Wald χ^2	18.9***	29.83***	39.71***
N	337	229	223
R-square	0.115	0.186	0.234

Notes: *: $P < 0.1$, **: $P < 0.05$, ***: $P < 0.01$.

내생성(endogeneity)을 고려하여 본 분석에서는 식 (1)에 대한 도구변수모형 분석을 통해 〈Table 5〉를 도출하였다. 도구변수모형의 결과는 〈Table 5〉의 [A]이며 1단계 추정에 대한 결과가 [B]이다. 모든 X 변수와 도구변수 Z 변수를 독립변수로 넣은 1단계 추정식에서 도구변수 Z 변수에 대한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에 대한 F-test를 확인해야 한다. 도구변수 Z는 X와 관련성이 있으면서도 Y와는 독립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변수의 선택 및 자료 확보는 쉽지 않다. 본 연구는 Olney (2013)의 도구변수 모형을 참고하여 Political Constraint Index(POLCON, Henisz, 2002)에서 제공하는 정권이념성향 변수를 도구변수로 하였다. 다만 노조조

〈Table 5〉 The Effect of Trade Union Density on FDI (IV)

	β (s. e.)
[A]. IV (2SLS)	
trade union density _{t-1}	-0.485* (0.260)
control variable	Yes
countries/years	Yes
obs	341
R ²	0.352
[B]. 1st stage estimation	
ideology _{t-1}	0.559** (0.192)
control variable	Yes
countries/years	Yes
F-stat, instruments	264.58***

Notes: *: P<0.1, **: P<0.05, ***: P<0.01.

직를 역시 한 모형의 독립변수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도구변수로는 사용하지 않는다. 정부는 근로자의 고용보호수준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거나 혹은 완화하는 변화를 줄 수 있고 이것은 정부의 이념성향이 반영될 것이다. 여권(ruling party)이 진보에 가깝다면 고용보호와 관련된 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을 사용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Olney, 2013). 분석결과 정권이념성향과 고용보호수준을 도구변수로 사용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도구변수모형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상대국의 노조조직률은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에 부(-)의 효과를 가지며 10%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1단계 추정식에서는 정권이념성향이 보수일 경우 근로자의 권익과 보호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이에 따라 근로자는 노조를 통해 이것을 추구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것은 고용보호수준 변수의 결과와도 유사한데 정부의 고용보호정책을 통한 근로자 보호수준이 낮을 때 노조가입률은 증가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은 Olney(2013, p.199)의 설명과도 일맥상통한다.

한편 OECD에서 제공하는 고용 보장법 지표를 활용하여 투자 상대국의 고용보호수준이 한국기업의 FDI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 역시 상대국 노동시장의 근로자 보호 수준을 가늠하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의미 있는 분석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Table 6〉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Table 4〉와 달리 고용보호수준은 동일

〈Table 6〉 Employment Protection on FDI from South Korea
to OECD countries (RE)

변수	(1)	(2)	(3)
GDP _{t-1}	2.228** (0.761)	5.258** (1.694)	3.883* (2.154)
popoluation _{t-1}	-1.356* (0.721)	-4.346** (1.612)	-3.211* (1.846)
corporate tax rate _{t-1}	-1.949** (0.900)	-0.910 (1.372)	-0.520 (1.777)
unit labor cost _{t-1}		-0.118 (0.079)	0.241 (1.567)
average years of schooling _{t-1}		5.396 (3.685)	3.834 (3.946)
employment Protection _{t-1}		0.849 (0.558)	0.505 (0.611)
RTA			0.999 (0.912)
EU			1.641** (0.544)
trade openness			0.183 (0.565)
constant	7.563* (4.155)	-1.288 (13.252)	-2.257 (14.179)
Wald χ^2	18.9***	27.95***	35.59***
N	337	228	222
R-square	0.115	0.156	0.196

Notes: *: P<0.1, **: P<0.05, ***: P<0.01.

모형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가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고용보호수준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형에 도구변수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Table 7〉)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임의효과모형의 결과와 같이 상대국의 고용보호수준이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없었다.

이는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선진국 대상의 한국 해외직접투자자로 한정되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한국의 OECD 국가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는 저비용을 목적으로 하는 수직적 해외직접투자(vertical FDI) 보다는 시장 확대를 위한 수평적 투자

(horizontal FDI)에 집중되어 있다. 수평적 투자란 해외시장에 물건을 팔거나 수출 시 발생하는 운송비용(transport cost)을 피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FDI인 경우를 의미한다(Markusen, 1984). 즉 OECD국가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저임활용 등을 위해 이루어지는 수직적 투자는 포함시키지 못해 고용보호수준에 대한 민감도를 과소 추정할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역시 수평적 투자는 현지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이루어진 투사이기 때문에 그 국가의 고용보호수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Olney, 2013). 본 연구에서 고용보호수준 보다는 노조조직률이 유의한 효과를 가진다는 사실은 한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결정 시 노사관계적 특성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기존 선행연구를 실증적으로 확인한 결과이다. 더불어 노조조직률이 높아 근로자의 협상력이 높은 국가에 대해 투자 매력을 덜 느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7〉 Employment Protection on FDI from South Korea to OECD countries (IV)

	β (s. e)
A. IV(2SLS)	
employment protection _{t-1}	-0.989 (6.265)
control variable	Yes
countries/years	Yes
obs	199
R ²	0.475
B. 1st stage estimation	
ideology _{t-1}	0.025** (0.009)
control variable	Yes
countries/years	Yes
F-stat, instruments	475.21***

Notes: *: P<0.1, **: P<0.05, ***: P<0.01.

더불어 노조조직률과 고용보호수준의 분석결과에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분석에서 노조조직률은 전체 임금근로자 중 노조에 가입된 근로자의 비율을 의미하며 고용보호수준은 각 국가의 개인 또는 근로자를 해고 절차 및 그에 따른 비용, 고용계약 상 고용기간 및 임시직 여부를 통해 한 국가

의 고용보호수준을 지표화한 것으로 정의상에 차이가 존재한다. 둘째, 이론적으로 두 변수간의 특정한 관계를 고려해 볼 수 있지만 <Table 3>의 상관관계분석(Pearson correlation matrix)에 따르면 노조조직률과 고용보호수준 간에는 유의한 통계적인 상관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두 변수 간 서로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 이유를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노조조직률이 유의한 음의 관계를 갖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시 노조여부 필수 고려사항이기 때문이다(최순규 외, 2010; 김동원, 2017). 반면 본 연구의 분석자료가 OECD 대상국으로 이루어진 수평적 해외투자를 대변하기 때문에 고용보호수준이 해외직접투자와 어떤 명확한 관계를 갖는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V. 결론 및 정책적 제언

본 연구에서는 투자대상국의 노동시장 조건, 그 중에서도 노조조직률과 고용보호수준이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 및 실증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해외직접투자 결정 시 노동시장 여건이 낮은 곳을 선택하는 하향경쟁(race to bottom) 현상이 한국 사례에서도 관찰되는지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먼저 이론모형을 통해 투자대상국의 노조조직률과 그 국가에 대한 해외직접투자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다. 실증분석을 위해 한국의 OECD 국가에 대한 FDI와 투자대상국의 특성변수를 2001~2012년간 패널 자료로 구축하여 임의효과모형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상대국의 노조조직률 및 고용보호수준 간에 존재하는 내생성(endogeneity)을 고려하여 정권이념성향 변수를 도구변수로 하는 도구변수모형 분석을 통해 연구결과를 재확인하였다.

그 결과 노조조직률은 한국의 기업의 해외투자에 유의한 부(-)의 효과를 가진 반면 고용보호수준은 상대국에 대한 FDI에 유의한 효과를 미치지 않았다. 투자대상국가의 근로자 협상력이 높은 국가에 대해서는 FDI를 낮추는 모습을 한국 사례에서도 확인한 것이다. 해외직접투자 결정 시 상대국의 노동시장 조건, 그 중에서도 노조조직률이 큰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은 한국 기업이 근로자 협상력이 큰 국가에 대해 투자 매력을 덜 느낀다고 볼 수 있으며 나아가 해외투자 시 투자대상국의 노조에 대한 회피성향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앞서도 언급되었듯 한국의 대기업들은

해외투자 결정 단계에서 투자대상국의 노사관계적 특성을 필수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를 실증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하지만 OECD 국가를 분석대상으로 하므로 선진국 대상의 한국 해외직접투자로 한정되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한국의 OECD 국가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는 저비용을 목적으로 하는 수직적 해외직접투자(vertical FDI) 보다는 시장 확대를 위한 수평적 투자(horizontal FDI)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 해외 투자금액의 62%가 OECD 국가에 투자되고 있고 수평적 투자에 해당되는 투자금액이 전체투자액의 50%에 가깝게 나타나고 있어 본 자료를 통한 분석결과가 한국의 FDI에 대한 연구결과에 있어 대표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지만 저임활용 등을 위해 이루어지는 수직적 투자는 포함시키지 못해 고용보호수준에 대한 민감도를 과소 추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의 한계와 발전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본 연구의 분석대상을 OECD 국가로 제약할 수 밖에 없었다. 실제로 한국 기업의 해외투자는 중국과 동남아 지역에서 큰 규모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투자대상국의 노동시장 특성을 대변하는 고용보호수준지표가 현재까지는 OECD국가 위주로 작성되어져 왔다. 둘째로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수평적 투자와 수직적 투자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을 때 수직적 투자에 대해서는 관측치가 분석기준에 미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참 고 문 헌

1. 김동원, “해외직접투자와 노사관계 전략,” 『노동정책연구』, 제17권 제1호, 2017, pp.173-198.
(Translated in English) Kim, Dong-one,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Industrial Relations: Hyundai Motor Company’s Strategy in Brazil,” *Quarterly Journal of Labor Policy*, Vol. 17, No. 1, 2017, pp.173-198.
2. 손녕선·허 정, “제조업 기업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와 해외직접투자 간의 관계 분석,” *경제학연구*, 제65권 제2호, 2017, pp.137-169.

- (Translated in English) Son, Nyeong-Seon and Hur, Jung, "Empirical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Inward and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of Manufacturing Firms," *The Korean Journal of Economic Studies*, Vol. 65, No. 2, 2017, pp.137-169.
3. 최순규 · 신헌덕 · 이재은 · 이선주, "한국 다국적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위험관리," 『국제경영리뷰』, 제14권 제2호, 2010, pp.179-211.
 - (Translated in English) Choe, Soon-Kyoo, Hyung-Deok Shin, Jae-Eun Lee and Sun-Joo Lee, "Risk Management in Foreign Direct Investment of Korean Multinational Companies,"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 Vol. 14, No. 2, 2010, pp.179-221.
 4. Arestoff, Florence and Clotilde Granger, "Does Trade Openness Affect Core Labour Standards?" *Paper Presented at European Study Group Conference*, Nottingham (UK), 2004.
 5. Barro, Robert J. and Jong W. Lee, "A New Data Set of Educational Attainment in the World, 1950 - 2010,"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Vol. 104, 2013, pp.184-198.
 6. Barth, Erling, Alex Bryson, and Harald Dale-Olsen, "Union Density, Productivity and Wages," 2017.
 7. Bénassy-Quéré, Agnès, Maylis Coupet, and Thierry Mayer, "Institutional Determinan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The World Economy*, Vol. 30, No. 5, 2007, pp.764-782.
 8. Bognanno, Mario F., Michael P. Keane, and Donghoon Yang, "The Influence of Wages and Industrial Relations Environments on the Production Location Decisions of U.S. Multinational Corporations," *ILR Review*, Vol. 58, No. 2, 2005, pp.171-200.
 9. Bonnal, Michaë, "Export Performance, Labor Standards and Institutions: Evidence from a Dynamic Panel Data Model," *Journal of Labor Research*, Vol. 31, No. 1, 2010, pp. 53-66.
 10. Bryson, Alex, "The Effect of Trade Unions on Wages," *Reflets et perspectives de la vie économique*, Vol. 46, No. 2, 2007. pp.33-45.
 11. Busse, Matthias, "Do Transnational Corporations Care about Labor Standards?" *The Journal of Developing Areas*, 2003, pp.39-57.
 12. Dewit, Gerda, Holger Görg, and Catia Montagna, "Should I Stay Or should I Go? Foreign Direct Investment, Employment Protection and Domestic Anchorage," *Review of World Economics*, Vol. 145, No. 1, 2009, pp.93-110.
 13. Duanmu, Jing-Lin, "A Race to Lower Standards? Labor Standards and Location Choice of Outward FDI from the BRIC Countries,"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 Vol. 23, No. 3, 2014, pp. 620-634.
 14. Farber, Henry S., "Notes on the Economics of Labor Unions," 2001.
 15. Figini, Paolo and Holger Görg, "Does Foreign Direct Investment Affect Wage Inequality? an Empirical Investigation," *The World Economy*, Vol. 34, No. 9, 2011, pp.1455-1475.
 16. Fujita, Masahisa, Paul R. Krugman, and Anthony J. Venables, *The Spatial Economy: Cities, Regions, and International Trade*, MIT press, 2001.
 17. Görg, Holger, "Fancy a Stay at the 'Hotel California'? the Role of Easy Entry and Exit for FDI," *Kyklos*, Vol. 58, No. 4, 2005, pp.519-535.
 18. Keefer, Philip, "Database of Political Institutions: Changes and Variable Definitions,"

- Development Research Group, *World Bank*, 2005.
19. Kucera, David, "Core Labour Standards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International Labour Review*, Vol. 141, No. 1, 2002, pp.31-69.
 20. Metcalf, David, Unions and Productivity, Financial Performance and Investment: International Evidence: Centre for Economic Performance,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2002.
 21. Olney, William W., "A Race to the Bottom? Employment Protection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 91, No. 2, 2013, pp.191-203.
 22. Portugal, Pedro and Hugo Vilarés, "Labor Unions, Union Density and the Union Wage Premium," *Banco de Portugal Economic Bulletin*, 2013, pp.61-71.
 23. Potrafke, Niklas, "Globalization and Labor Market Institutions: International Empirical Evidence,"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Vol. 41, No. 3, 2013, pp.829-842.
 24. Redding, Stephen and Anthony J. Venables, "Economic Geography and International Inequality,"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 62, No. 1, 2004, pp.53-82.
 25. Rodrik, Dani, Labor Standards in International Trade: Do they Matter and what do we do about them?: Overseas Development Council, 1996.

Appendix

(A. 1) Trade Union Density of OECD Countries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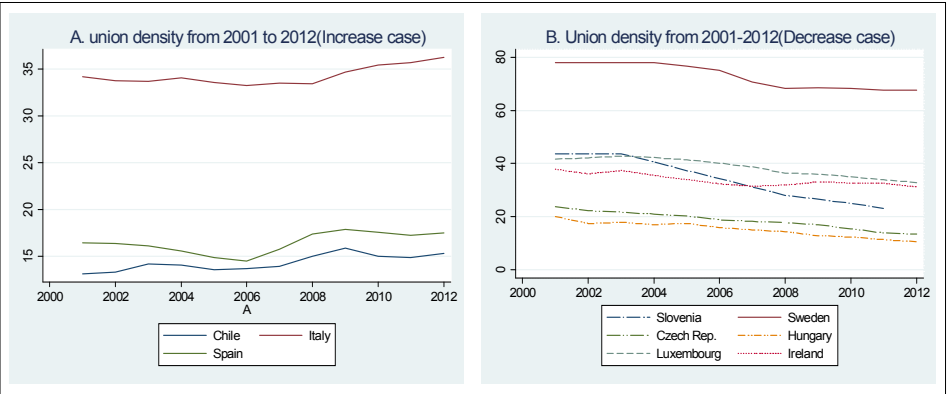
(Unit: %)

Country Name	2012		
Australia	18.2	Japan	18.0
Austria	27.4	Luxembourg	32.8
Belgium	55.0	Mexico	13.6
Canada	27.5	Netherlands	17.7
Chile	15.3	New Zealand	20.5
Czech Republic	13.4	Norway	53.3
Denmark	67.2	Poland	12.5
Estonia	6.4	Portugal	20.5
Finland	68.6	Slovak Republic	16.8
France	7.7	Slovenia	23.1
Germany	17.9	Spain	17.5
Greece	21.3	Sweden	67.5
Hungary	10.6	Switzerland	16.2
Iceland	82.6	Turkey	4.5
Ireland	31.2	United Kingdom	25.8
Israel	32.8	United States	11.1
Italy	36.3		

Footnote: Israel(2007), Slovenia(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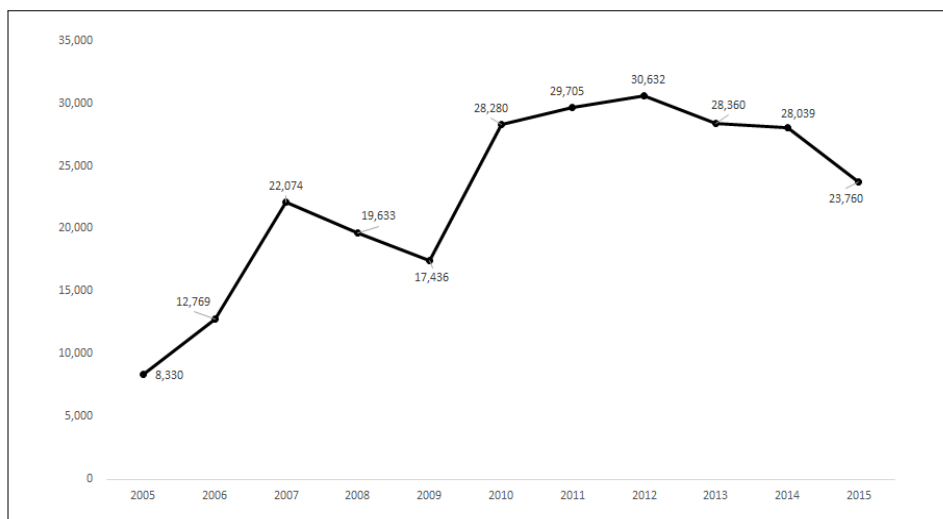
(A. 2) Trend of Trade Union Density of Countries

(Unit: %)



[A. 3] Outward FDI of South Korea

(Unit: m\$)



Source: OECD International Direct Investment Statistics.

[A. 4] Outward FDI by Investment Characteristics (2015)

(Unit: 1,000 won)

Characteristics		Events	Amount of Money (reported)	Amount of Money (implemented)
total		8,898	40,233,504	27,180,110
✓	market access	5,933	18,517,419	13,323,447
	export promotion	1,256	1,752,653	1,620,388
	low wage	823	1,156,623	823,781
	third country export-platform	453	11,161,915	5,502,907
	natural resources development	254	6,210,481	4,570,556
	technology introduction	155	1,370,323	1,279,529
✓	avoiding protectionism	14	42,629	39,679
	etc.	9	19,960	18,310
	securing raw material	1	1,500	1,512

Data: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The Impact of Labor Market Condition of a Host Country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from South Korea: Theory and Evidence

Hanna Jung* · Sang-Kee Kim**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 of labor market condition of countries to attract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from South Korea. To examine the effect, first we set up a theoretical framework, then empirically test it using the unbalance panel data on OECD countries for the period of 2011~2012. From the empirical estimation, this study shows that trade union density of the host countries has the negative effect on the FDI. However, employment protection and skill level of the countries do not show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s on the FDI. Other control variables such as GDP, EU member, and RTA (regional trade agreement) participation are significant on the FDI.

Key Words: foreign direct investment, trade union density, employment protection

JEL Classification: F16, F23, J80

Received: April 16, 2018. Revised: July 11, 2018. Accepted: Aug. 24, 2018.

* First Author, Research Fellow,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Taejeong-ro, Maengdong-myeon, Eumseong-gun, Chungcheongbuk-do 27740, Korea, Phone: +82-43-870-3733, e-mail: hnjung5493@gmail.com

** Corresponding Author,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Regional Economic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346, Jungang-ro, Samcheok-si, Gangwon-do 25913, Korea, Phone: +82-33-570-6641, e-mail: abekim@kangwon.ac.kr